

광양산단 동호안 입지규제 해소 ‘투자 활성화’

철강 관련 업종 한도 규제 풀어 포스코그룹 중심 전략산업 육성

광양국가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장애물 이던 동호안 규제 해소를 첨단 신산업 투자 활성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남도는 28일 광양국가산단의 첨단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철강 관련 업종에만 묶였던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입

지 규제가 풀리게 됐다.

현재 전남도는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을 중심으로 광양국가산단에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첨단 신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선 동호안의 입지규제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했다.

이에 전남도는 포스코그룹과 함께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

을 지속해서 방문해 제도 개선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이번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돼 기업의 첨단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 길이 열리게 됐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에 10년간 4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광양국가산단을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의 투자계획이 실현되면 국

가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이 세계적 첨단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포스코그룹 투자계획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첨단기업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간재·광양=안영준 기자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 여수 섬 주민들

여수시 섬 주민들이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도선을 이용하는 섬주민과 여수시민, 상주 외국인 등에게 운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섬 주민이 도선을 이용해 다른 섬으로 이동 시 1000원 요금이 적용된다.

여수시민과 상주 외국인은 3000원 이상인 도선 이용 시에도 운임 50% 할인이 적용된다. 차량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섬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선 운임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인 해운 조합 전산 매표 시스템을 도선에도 도입해 운임 할인이 가능하게 했다. 내년 1월1일 제도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해당 읍면동 직원과 도선운영자를 대상으로 전산매표시스템 이용교육 실시, 해당 도선에 승선해 무선단말기 발권처리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시행을 준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공공기술 민간이전 상용화 첫발 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8일 자원관 대회의실에서 정진건강 분야 특허기술 2건을 ㈜도담허브한약품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도담허브한약품은 국내·외 한약 제재를 생산·유통하는 기업으로 한약산업 분야에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이전하는 특허기술은 △취(임) 추출물을 활용한 긴장 완화 △길초근 추출물을 활용한 수면 개선 등 두 건이다.

㈜도담허브한약품은 이전 기술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또는 한약 복합물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술료를 지급 받게 된다.

류대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에 민·관이 협력해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달성 순천시,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 2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 청렴도는 작년까지 4년간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민선8기 노관규 시장 재임기간 중 첫 평가에서 2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시는 반부패 청렴의지를 담아 감사실 공직윤리팀을 ‘청렴윤리팀’으로 개편했고 올 시무식에서 간부공무원 청렴 다짐 선서를 시작으로 시정을 시작했다.

11개 부서로 청렴TF팀을 구성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여기에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전직원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소통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렴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로부터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해 청렴실천을 인정받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4년 해맞이 행사 준비 ‘분주’ 여수시 봉화산 일출제 추진위

여수시 묘도동 봉화산 일출제 추진위원회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여수시 묘도동 추진위에 따르면 내년 해맞이 행사는 1월1일 오전 6시부터 묘도동 봉화산 전망대와 이순신대교 홍보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순신대교 홍보관 앞에는 봉화산 일출제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떡국과 음료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10명의 추진위원들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해맞이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이 기간 위원들은 등산로에 쌓인 눈과 낙엽을 쓸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전망대 주변에 안전띠를 설치했다.

‘본디 홍화순차’ 미국 수출길 전남농기원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의 연구개발로 탄생한 ‘본디 홍화순차’가 농식품 전문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골든힐을 통해 미국에 수출됐다.

‘본디 홍화순차’는 증제와 덩유 공정을 통해 동글레차와 같은 구수한 향뿐 아니라 퀴세틴·루테올린 등 기능성 성분을 갖춘 침출차로 1만2000티백 분량이며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2020년부터 홍화의 골관절염 예방 기능성 연구 과정에 홍화재배 시 순지르기 작업으로 버려지는 홍화순의 골관절염 예방 효과를 밝혀내고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지역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본디 홍화순차’를 작년에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해남미소’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내년 ‘한살림’ 유통망을 확보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소재 최경주 홍화팍 대표는 “버려왔던 홍화순으로 소득을 올리고 수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고품질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개발자인 이우석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는 “홍화는 씨뿐 아니라 홍화순까지 가공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 새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제품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여수시 묘도동 봉화산 일출제 추진위원회가 2024년 해맞이 행사 준비에 나섰다.

여수시 묘도동 추진위 제공

목포시, 노적봉서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

드론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목포시는 31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타종식 행사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노적봉 새천년 시민의 종각에서 열리는 타종식은 갑진년 새해 0시에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2024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지역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목포시의 큰 도약을 염원하는 33번의 타종이 이어진다.

식전공연으로 목포시립합창단과 타악그룹 얼쑤의 신명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타종 후에는 갑진년 새해 첫바람을 화려하게 수놓을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소원지 쓰기과 청룡 포토존이 운영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주관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떡국과 음료를 나누는 행사도 마련되고, 타종식 행사장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방문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고 없는 행사를 위해 안전점검과 경찰·소방 등과 연계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조선중기 누정’ 곡성 함허정…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조선 중기 섬진강 구룡에 건립된 곡성 ‘함허정’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곡성군은 전남도 유형문화재인 ‘곡성 함허정’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곡성 함허정은 조선 중기 심광형(沈光亨·1510~1550)이 섬진강 일대 구룡지에 건립한 팔작지붕 형태의 누정이다. 함허정 일원은 거북이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의 등 위에 함허정이 자리



하고 절벽 아래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河中巖島)가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함허정은 당시 옥과현감이자 조선 후기 호남 실학자였던 위백규(1727~1798), 서화가 신위(1769~1845)를 비롯해 여러 문인들의 교류 흔적과 함허정 주변 경관을 예찬한 시문(詩文)이 전해지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친환경 시티투어 전기버스 일부 운행 중단

담양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친환경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일부 중단한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조치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2017년 3대, 2018년 1대 모두 4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해 관광명소인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소쇄원 등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티투어 관광객 수요가 급감한데다 버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

자 4개 코스 중 시내와 가사문학 2개 코스의 운영을 중단기로 했다.

현재 운행 중인 담빛문화지구 순환버스는 기존대로 운행할 예정이며, 군은 이용객 혼란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 전기버스 차량 내·외부, 정류장 주변 등에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행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